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 구개음화와 '오>우'의 변이와 변화에 관한 연구*

배혜진**

— || 차례 || —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ㄱ, ㅎ 구개음화'의 변이와 변화
- IV. '오>우'의 변이와 변화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달성지역 노년층과 청소년층 화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ㄱ, ㅎ 구개음화, '오→우' 변이형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음운 현상의 변화 양상 및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달성지역의 ㄱ, ㅎ 구개음화는 현대 노년층에서는 실현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 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에 생성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였지만 현대국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우' 변화 역시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영역이 어휘 형태소에 한정되어 있었고 확산 속도 또한 미약하였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어휘 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소에서도 개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달성지역어의 '오>우'는 변화 역시 17세기부터 나타났지만 ㄱ, ㅎ 구개음

* 이 논문은 2014년 한민족어문학회 춘계 전국학술대회(2014년 2월 14일)에서 '달성지역어의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연구-ㄱ, ㅎ 구개음화와 '오>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화와 반대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의 방식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진행·확산하고 있는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달성지역어,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오>우, 언어 변이, 언어 변화, 어휘 확산

I. 서론

‘언어’는 공시적, 통시적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연구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통시적인 음운 변화와 공시적인 음운 변이 사이의 상관성을 두고 함께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조주의 언어학 이래로 공시태와 통시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일 것이다. 공시태와 통시태의 엄격한 구분은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술과 설명을 위해 필요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일정한 공시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변이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강희숙 1998: 7).

공시적 음운 변이는 역동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역동성이 통시적 음운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시적 음운 변이형들이 산발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세대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보인다면 해당 언어 공동체의 언어 변화 방향도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 연구에서는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를 살펴보고, 공시적 음운 변이의 단계를 거쳐 통시적 음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이고자 한다. 공시적 음운 변이 상태에서는 언어 내적 요인과 함께 세대나 말투와 같은 언어 외적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시적 변이가 통시적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달성지역 노년층과 청소년층 화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ㄱ, ㅎ 구개음화, '오>우' 변화를 반영하는 공시적 변이형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달성지역에서 발행된 문헌 자료 및 방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두 음운 현상의 생성 시기, 음운 현상의 수행 방식과 확산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예측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동일과정설의 원리(uniformitarian principles)’란 오늘날 언어 변이와 변화를 발생시키는 제약과 요인들은 과거 수백 년 전 또는 그 이전의 역사적 단계에서 출현했던 변이와 변화를 조건 지었던 것들과 그 본질과 유형에 있어서 대략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언어 변화는 언어 변이를 통해 발달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강희숙 1999: 121). 공시적인 언어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는 통시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공시적 상태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음운현상의 변이형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음운현상이 적용된 실현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 ②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공존하는 경우
- ③ 음운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비실현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①과 같이 특정지역, 특정시기에 음운현상이 적용된 개신형만 나타난다면 음운변화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③과 같이 음운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보수형만 나타난다면 음운변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와 같이 특정지역, 특정시기에 음운현상이 적용된 개신형과 적용되지 않은 보수형이 공존할 경우에는 음운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도 개신형과 보수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음운변화가 확산 중일 수도 있고 소멸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①~③과 같은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달성지역어에 나타나는 음운변화의 수행과 전파, 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달성지역어에 나타나는 언어 변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지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이다.¹⁾ 제보자는 ① 달성군에서 성장한 사람, ② 노년층 여성 제보자의 경우 달성군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시집 온 사람, ③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달성군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3가지 조건에 따라 판정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W. Labov(1972: 209-210)에서 관찰자의 모순(observer's paradox)을 최대한 줄이는 자료가 자연스러운 이야기 형식의 발화라고 하였다. 그래서 관찰자의 모순을 최대한 줄이고 일상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이형들을 조사하기 위해 제보자의 집에서 일대일로 면담하는 상황을 피하고, 여러 제보자와 함께 친숙한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창면 용계리의 세대별 제보자 목록은 (1)과 같다.

1) 『현풍곽씨언간』에서 많은 비증을 차지하는 발신자는 ‘곽주’이다. 곽주는 주로 현풍면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달성군이라 하더라도 현풍면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제보자를 찾지 못하여 가창면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현풍면을 조사 지점으로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1) 세대별 제보자 목록

세대	성별	연령	제보자 수
노년층	남	60~80대	3
	여	60~80대	3
청소년층	여	10대	3
	여	10대	3

Wyld(1927:21)에 따르면, ‘언어변화라는 드라마’는 문헌 자료나 비문에서 상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과 마음에서 상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역사는 일차적으로 구어의 역사라고 주장해 왔다(정영인 외 6인 1998:28-29). 이러한 측면에서 『현풍곽씨언간』은 17세기 달성지역어의 구어를 보여주는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Wyld(1927:21)에서 지적하였듯이 구어 자료라 하더라도 상황적 맥락이 제거되어 있을 경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 언간은 구어자료이면서도 동시에 문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구어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언간은 문헌자료들 중 가장 구어의 성격에 가까운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현풍곽씨언간』의 경우 대부분이 곽주가 그의 부인에게 쓴 편지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고, 하나의 편지가 완전한 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담화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1602년에서 1652년에 걸쳐 작성된 『현풍곽씨언간』은 17세기 초, 임진왜란 직후 달성지역어의 언어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글 필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달성지역어가 반영된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달성군 편』을 자료로 삼았다. 이 자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구비 문학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구비 문학이란 말로 전해지는 것이고 『한국구비문학대계』 역시 달성지역 제보자들의 자

연 발화로 엮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방언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연속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기 때문에 담화 상황의 파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자료를 보이면 (2)와 같다.

(2) 선정 자료

자료	연도	비고
현풍곽씨 언간	1602~1652	
한국구비문학대계	1985년	
방언 조사 자료	2013	세대별 차이

Ⅲ. ‘ㄱ, ㅎ 구개음화’의 변이와 변화

구개음화는 비구개자음이 단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서 구개자음으로 변하는 음운현상으로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가 있다. 백두현(1992:340)에서는 경상방언에서 ㄷ-구개음화가 어두와 비어두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으며, 16세기 후반에 발생하여 17세기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완성된 ㄷ-구개음화는 공시대의 언어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지만 이미 진행이 완료된 음운 현상으로 현대국어에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고의 관찰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음운 현상인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3) ㄱ, ㅎ 구개음화 조사항목

	용언	체언
ㄱ구개음화	견디다 길다 기대다 깊다 (구름이) 끼다 (문에) 끼이다	결 김치 길 기둥 계집 기름 기침 기차
ㅎ구개음화		형(님) 힘(불림) 흙

1. ㄱ, ㅎ 구개음화의 세대별 변이

ㄱ-구개음화에 비해 ㅎ-구개음화는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한 어휘들 중에서도 ‘힘, 형, 혀, 흙’과 같은 제한된 항목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강희숙 (2001:11)에서도 밝혔듯이 ㅎ-구개음화의 경우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잔존형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ㄱ-구개음화는 [+back] 자질을 가지는 연구개자음 /k, k', kʰ/가 단모음 /i/나 반모음 /j/의 [-back] 자질에 의해 경구개 자음 /tʃ, tʃ', tʃ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달성지역의 노년층, 청소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자.

- (4) ㄱ. 지금은 고마 전디질 문해, 그 때는 전딜 만하이~그래가 견딤지 / 진 거로 쑤시가, 질마 질다쿠지 짜리마 짧다쿠지, 지다란 거 갖고가 / 지대고 다니는 거, 요짜 지대라 / 짚은 데는 드가마 크일 나지~그래, 깊우지 / 구름이 찢다가지, 그래 찌는데도 비는 안 오테~구름이 끼마 덮어야지 / 야야! 찡길라, 찡긴다 안카나
- 나. 질 절에 앉아가 팔지, 그 때는 질 절에 마이 있었어, 질 가에 밤났으
로 / 지집아들이 아몰져, 지집질한다꼬 댕기고~인제는 기집질 문하지

/ 지침병이 들어가~기침한다꼬 내 아이고아이고 / 집치도 몬 맨들었
어 / 지동이라 안 카나 지 ~기동도 맞고 지동도 맞고 / 챙지름도 주나?,
지름집 할마시가 / 기차 타고 멩기매 고상했지

- (5) ㄱ. 참고 견디라카는데 못해요 / 이게 더 길다 아니에요?, 아이다 이게
더 길지 / 거기 기대라고, 계속 기대고 있으면 뿌사진다고 / 깊은데
가지 말라고, 거기 깊다고 / (구름) 졌네, 졌다고 카잖아요, 흐리면 긴다
고 / 손가락 깁길라~(문에) 짱기면 책임지나?, 진짜 짱긴다고
ㄴ. 결어요 / 길에서 길에다가 그랬다니까요 / 기집아들이 진짜 / 기칩
나와요 / 김치 먹나?, 김치 못 먹는 사람이 / 저기 기동에 붙이라고 /
이거 참기를 냄새잖아요 / 기차? KTX는요?, 둘 다 기차라고

(4. ㄱ)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노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며, (4. ㄴ)은 체언의 곡용 과정에서 나타난 노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다. (5. ㄱ)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며, (5. ㄴ)은 체언의 곡용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다.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ㄱ-구개음화는 ① 어두 음절에서만 실현되고 ② 모음 i나 j 앞에서 실현되며 ③ 개음절이나 말음을 비음, 유음으로 가지는 폐음절에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²⁾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들 역시 이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ㄱ-구개음화가 실현되지만, ‘결, 깊다’와 같이 폐음절 말음이 비음이나 유음이 아닌 어휘 일부에서도 ㄱ-구개음화형이 활발히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상규·안귀남(2007: 288-289)에서도 ㄱ-구개음화는 경상, 전라, 함북방언에는 개신형이 퍼졌으나 경기, 황해, 평안방언까지는 확산되지 못했으며, 실현 조건도 어두 음절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경상방언에서 ㄱ-구개음화는 동화주가 ‘여’인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실현되지만, ‘요, 유’가 동화주인 경우에는 드물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4)에서 '견디다, 깊다, (구름이) 끼다, 계집, 기침, 기둥'은 구개음화가 실현되는 '전디다, 짚다, 찌다, 지집, 지침, 지둥' 형태와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견디다, 깊다, 끼다³⁾, 기집, 기침, 기둥'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중모음 /jæ/를 동화주로 가지고 있는 어휘 '결, 견디다'는 동화주의 자질이 확산되어 /t͡ʃ/로 구개음화될 때 이미 후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은 탈락되어 '절, 전디다'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중모음 /je/를 동화주로 가지고 있는 어휘 '계집'의 경우 역시 동화주의 자질이 확산되어 /t͡ʃ/로 구개음화될 때 이미 후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je->t͡ʃe->t͡ʃi-'로 각각 구개음화, 고모음화(에->이) 과정을 거쳐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달성지역 청소년층에서는 (5)에서 보듯이 '끼이다'를 제외하고는 ㄱ-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강희숙(2001 : 9)에서는 피동화주가 /k/인 경우에 구개음화가 가장 생산적으로 나타나며, /k'/나 /kʰ/인 경우에는 극히 적은 수의 몇몇 어휘에만 한정되어 구개음화가 수행된다고 하였으나, 달성군 청소년층에서는 구개음화 실현형이 /k/인 어두 음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k'/인 어두 음절 '끼이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청소년층 일상 발화에서는 구개음화 실현형 '짹기다'와 함께 비실현형 '깡기다'도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끼이다'가 아닌 '깡기다'인 점이 특이하다. '짹기다'는 '깡기다'의 ㄱ-구개음화형으로 달성군 청소년층에서 공식적 잔존형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 ㄱ-구개음화 변이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개음화는 일반적으로 동조음에 의한 동화 현상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Blevins(2004 : 138)에서는 CV의 동조음이 국부적

3) 특히 '(구름이) 끼다'는 원래 조사 항목이 아니었는데 제보자들의 자연 발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ㄱ-구개음화의 경우 /ㄱ, ㅋ/의 경우에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동화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인지적 요인들도 음 변화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면서 연구개음의 구개음화를 예로 들고 있다.⁴⁾ Guion(1998)에서도 전설 고모음 앞의 연구개 파열음이 동일 환경의 경구개-치경 파찰음과 음향적으로 유사하여 청자들이 쉽게 혼동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다.⁵⁾ Wintitz(1972)의 인지적 연구에서도 연구개음의 구개음화에서 환경 [i]의 작용을 청자들이 분석해 내지 못할 때 [k]>[tʃ]의 음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만약, 음향적, 인지적 유사성 때문이라면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의 실현율이 비슷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의 ㄱ-구개음화 실현율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음향적, 인지적 유사성 때문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소년층 제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청소년들은 ㄱ-구개음화형인 ‘지름, 질다’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발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⁶⁾ 청소년층의 경우 노년층 화자들에 비해 표준어 교육을 일찍 받은 데다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비실현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성지역의 청소년층

4) 많은 언어에서 구개 분절음 앞에서 연구개음의 구개음화 되는 공식적 교체나 소리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리 변화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k>[tʃ]/_(i, j)를 보인다. 유성 연구개 폐쇄음의 구개음화는 무성 연구개 폐쇄음보다 빈번하지 않고, 연구개음의 구개음화는 비-고 전설 모음보다 전설 고모음/활음에서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Blevisns 2004: 138).

5) 그 외에도 유성 연구개음보다 무성 연구개 파열음에서 경구개-치경음과의 음향적 및 인지적 유사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개음의 인지적 특징을 고려하여 Guion은 여러 언어에서 연구개음이 구개음화하는 빈도가 높음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g]보다 [k]에서, 다른 모음보다 전설 고모음 앞에서 이 변화의 빈도가 높음을 설명하였다.

6) “할머니가 ‘지름’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 본 적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해요 내 친구들도 그런 말은 안 하던데요.”(청소년 여성1) “맞아요. 우리 할머니도 김치보고 짐치라고 카던데 처음에 김치지 몰랐어요. 김치는 김치지 짐치가 뭐예요.”(청소년 여성3).

은 구개음화를 실현하는 형태를 이른바 ‘낙인형(stigmatized form)’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ㅎ-구개음화는 [+back] 자질을 가지는 연구개자음 /h/가 단모음 /i/나 반모음 /j/의 [-back] 자질에 의해 경구개 자음 /ʃ/나 치조음 /s/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국어에서 ㅎ-구개음화는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다. 달성지역의 노년층, 청소년층 화자들의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자.

- (6) ㄱ. 시이야, 시이가 또 저칸다~혀이다카지 / 숯본따고 내 주깁지~홀이라카지 / 심불립한다꼬 설치, 실이 넘치나 마내~힐쓴다꼬도 카나?
 ㄴ. 히야가 자꾸 때려요, 히야 차례잖아 / 홀본 거 아인테요 / 자 진짜 힐 쎬요, 완전 맨날 힐자랑 해요

(6.ㄱ)은 노년층 화자들의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며, (6.ㄴ)은 청소년층 화자들의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다. 세대를 통틀어 ㅎ-구개음화는 용언에서 실현되는 어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체언에서도 ‘힘, 형, 흥’ 등의 일부 어휘에서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ㅎ-구개음화 잔존형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형’과 같은 환경에서 실현되는 ‘형제, 형수’ 등의 어휘에서는 ㅎ-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ㅎ-구개음화는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① 어두 음절에서만 실현되고 ② 모음 i나 j 앞에서 실현되며 ③ 개음절이나 말음을 비음, 유음으로 가지는 폐음절에서

7) 김규남(1998: 95-96)에서는 전북 정읍시 정혜마을의 음운 변이 현상을 분석하였는데, 이 지역 역시 ‘형, 흥, 혀, 힘’의 제한된 어휘에서만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었다. 강희숙(2001: 11-12)에서도 광주 지역에서 ‘힘, 형, 혀, 흥’의 어휘소와 관련된 소수의 형태들만이 ㅎ-구개음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⁸⁾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들 역시 이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ㅎ-구개음화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달성지역어에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의 변이형은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노년층에서는 대부분의 어휘에서 ㄱ-구개음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청소년층에서는 ‘끼이다’를 제외한 어휘에서 ㄱ-구개음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ㅎ-구개음화 역시 노년층에서는 대부분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만, 청소년층에서는 모든 어휘에서 ㅎ-구개음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ㄱ, ㅎ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2. ㄱ, ㅎ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

구개음화는 국어 음운사 연구와 개별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변화의 발생 시기, 발생의 중심지, 확산 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문헌자료와 현대 방언자료들을 대상으로 구개음화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앞 장에서 살펴본 현대 달성지역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달성지역에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가 어떻게 변화·확산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17세기 달성지역어 자료인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7)과 같다.

8) 이상규·안귀남(2007: 288-289)에서는 ㅎ-구개음화 역시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어두 음절에 한정되어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 (7. ㄱ. 지춤 지초디(148), 짚호고(134), 정산 아버지 이서(153), 덕남이를 맞겨(63)
 cf. 기춤 그저 갖는가(91)
 ㄴ. 멍지 설 거순(160), 세고 이시니(141), 세지 아니하라 호오니(145),
설마(125)

(7. ㄱ)은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ㄱ-구개음화 실현형들이다. ‘지춤 지초디’는 각각 ‘기춤’과 ‘깃-’의 구개음화형이고, ‘짚’은 ‘김’의 구개음화형이다. ‘정산’은 지명 ‘경산’의 구개음화형일 가능성이 높다.⁹⁾ 중간 두시언해(1632)에서도 ‘봄과 저으레’와 같이 ㄱ-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나는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현풍곽씨언간』에서도 (7. ㄱ)과 같이 ㄱ-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달성지역을 포함한 경상방언에서 ㄱ-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 초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 ㄱ)의 ‘맞겨’는 ‘맞더’(맞+이+어)가 ‘맞져’로 ㄴ-구개음화한 후 ‘저’의 ‘ㅈ’을 ‘ㄱ’으로 과도교정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도교정은 18세기 영남 문헌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¹⁰⁾ 이처럼 ‘ㅈ>ㄱ’과 같이 ㄱ-구개음화의 과도교정형이 17세기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17세기부터 ㄱ-구개음화가 달성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음운 현상이었음을 알려준다.

(7. ㄴ)은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ㅎ-구개음화 실현형들이다. ‘설’은 ‘셔+--ㄹ’로 분석되는데, ‘셔’를 ‘혀-’의 구개음화형으로 볼 수 있다. ‘세-’는 ‘혜-’의 구개음화형이고, ‘세-’는 구개음화된 ㅅ 뒤에서 반모음 j가 탈락된

9) 백두현(1998 : 115)에서는 경주로 출가한 딸이 현풍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려 하는데 심부름 보낼 노복들이 앓아누워 사람이 없던 차에 이웃 사람 중 ‘정산’에 부모가 있는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하기에 ‘정산’과 현풍은 하룻길이니 사흘 일해 주는 셈치고 이 사람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보낸다는 딸의 사연 속에서 ‘정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지명 ‘경산(慶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0) 백두현(1992 : 342-343)에서는 『십구사략언해』, 『인어대방』에서도 ‘맞기며, 맞기시니’와 같은 ㄱ-구개음화 과도교정형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것이다. ‘설마’는 ‘혈마’의 ㅎ-구개음화형이다. 『현풍곽씨언간』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중간 두시언해(1632)에서도 ‘나모지는 길^ㅎ로 서 가고’와 같이 ㅎ-구개음화형이 발견된다. 백두현(1992: 345)에서는 영남문헌어에서 ‘혀혈(舌)(유합 13a), 각형(覺聖)(해인사판 염불보권문 51a)’과 같이 원래 ‘ㅅ’을 가졌던 음이 ‘ㅎ’으로 바뀌는 ㅎ-구개음화 과도교정 형태들이 18세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달성지역에서 ㅎ-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 초부터 존재했던 음운 현상이며, 18세기에 접어들어서는 활발하게 적용되던 음운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달성지역어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달성군편』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8)과 같다.

- (8) ㄱ. 끌어 절에 놓고(145), 그런 지동이 있거든(150), 당시 지침병이 들었어
요(244), 하도 질이 험난해(250), 짚이 올라와 가주고(261), 남자가 열 지질
못하나(274), 내가 팔마 질마(169), 바우가 지다난 기 있는데(250), 전딜
수 있습니까(258), 지약을 해 노이께네(49), 야가 제우 걸어가는데(148)나.
실이 시다 카거든(168), 이 사람은 심들은 일도 잘하고(177), 성제간이
삼 형제로(101)
cf. 시이들하고 형부들하고(85), 헤이가 있다카민성(59), 큰 히이가(264)

『현풍곽씨언간』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구어와 문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데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일부의 어휘에서만만 ㄱ, ㅎ-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꽤 많은 어휘에서 ㄱ, ㅎ-구개음화형을 찾을 수 있었다. (8.ㄱ)의 ‘지약’은 ‘기약’의 ㄱ-구개음화형이고, ‘제우’는 ‘겨우’의 ㄱ-구개음화형이다. ‘제우’의 경우 이중모음 /jə/를 동화주로 가진 ‘견디다, 결’과는 다른 변이형으로 나타났다. ‘견디다, 결’의 경우 ㄱ-구개음화 후에 반모음 /j/를 탈락

시켰는데, '제우'의 경우 ㄱ-구개음화 후에 반모음을 탈락시키지 않고 /e/로 단모음화 하였다. (8.ㄴ)의 '성제'는 '형제'의 ㅎ-구개음화형이다.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재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에서는 '형제'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30년 전의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¹¹⁾ ㅎ-구개음화는 잔존형의 수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형제'라는 하나의 어휘에서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형'이 '시이~헤이~히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형이 나타나는데, 백두현(1998: 190)에서는 '시이'는 '형->성->생->싱->싱이->시이'의 규칙이 적용되었고, '히이'는 '형->행->형->형이->히이'의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4)~(6)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달성지역 노년층의 경우, 1985년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형제'와 같은 일부 어휘를 제외하고는 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나는데 비해 청소년층에서는 실현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준어 규정' 등의 언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ㄱ, ㅎ-구개음화를 변화로 수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개음화 실현형은 노년층 언어에서만 주로 나타나고 청소년층에서는 교육에 의한 '철자 발음의 지배'에 의해 구개음화 현상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층에서도 '(문에) 끼이다'의 경우 '짚기다'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 경우는 ㄱ-구개음화 현상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끼이다'를 제외한

11) 『구비문학대계』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 작성된 『한국방언자료집Ⅶ-경상북도 편』에서도 '길다[ci:da], [cirɔya], [ciriga], 깊다[cipu^hda], [cip^hun/cip^huŋik^hE], 끼이다 [c'innŋEEt'a], (안개)끼다[c'ijji, c'iiga, c'ii't'a], 꺾[cat, cat^hE], 기둥[cidon], 김치[ci:#, cimjan], 김치국[cimc^hik'uk]와 같이 ㄱ-구개음화가 실현된 형태와 '혀[sE], 혀-기[s^hEga], 혀바늘[s^hyEp'anɔ], 혀꺾[sEkɔnthiŋi#]와 같이 ㅎ-구개음화가 실현된 형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나머지 어휘에서는 실현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의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각 시기의 ㄱ, ㅎ-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보이면 (9)와 같다.

(9) ㄱ, ㅎ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

	17세기	1980년대	2013년	
	현풍곽씨언간	구비문학대계	노년층	청소년층
ㄱ, ㅎ 구개음화	ㄱ, ㅎ	ㄱ, ㅎ	ㄱ, ㅎ	ㄱ, ㅎ
	ㅈ, ㅊ	ㅈ, ㅊ	ㅈ, ㅊ	ㅈ
변화단계	생성·확산 —————> 축소·소멸			

달성지역에서 ㄱ, ㅎ-구개음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현대 노년층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짱기다’를 제외하면 ㄱ,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ㄱ, ㅎ-구개음화가 달성지역에서 더 이상 음운 현상으로서 세력을 갖지 못하고 급격한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노년층과 2013년 노년층 화자들 사이의 변화 속도보다 2013년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의 변화 속도가 훨씬 큰 것은 청소년층의 표준어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에 생성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였지만 현대국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IV. ‘오>우’의 변이와 변화

김진우(1971: 88)에서는 서울말에서 나타난 고모음화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 (10) ㄱ. ㄱ → ㄷ 베다 → 비다
- ㄴ. ㄱ → ㄱ 예배당 → 예베당
- ㄷ. ㄱ → ㅡ 없다 → 읊다 정 → 증
- ㄹ. ㅏ → ㅓ 하고 → 허구
- ㅁ. ㅏ → ㅓ 몰라 → 물러 돈 → 둔

위의 5가지 고모음화 현상들은 현대국어 모음 체계에서 본다면, 각각 한 단계씩 고모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10.ㄴ)의 ‘ㄱ→ㄱ’, (10.ㄷ)의 ‘ㅏ→ㅓ’는 각각 모음중화현상, ‘·’의 비음운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모음화 현상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강희숙 2005: 4-5).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고모음화 현상 중에서 달성지역어에서 진행·확산 중인 (10.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11) 오→우 조사항목

	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	
고모음화	놈	<조사>	<어미>
	옷	로	-고
	삼촌	도	-아도
	사촌	라도	
	부조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아마도		

1. ‘오→우’의 세대별 변이

조음상 자연스러운 음성 연결체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적 음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모음 간의 변화는 동일 서열 사이의 변화와 동일 계열 사이의 변화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전승 1981). ‘오→우’

고모음화는 동일 계열 사이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혀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고 혀의 높이만 조정이 일어나는 모음 상승(vowel raising) 현상이다. ‘오>우’의 변화는 현대국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생산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시적 음운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대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 양상을 노년층과 청소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2)~(13)과 같다.

- (12) ㄱ. 일본놀이라고도 안캐 왜놀이라 카지~왜놀들 / 옷을 해입었지~요 새는 옷을 사지 / 삼촌 서이하고 / 사촌동상이지만 안 믿어 / 부조를 한다 이기라 / 그라고 사람이 말이야 / 그래도 그라문 안 돼
 ㄴ. 내일로 하지, 거로 간다꼬, 손주 보러 서울로 가지 / 술도 맨날 목고, 공부도 잘 해 / 공부라도 해야 목고 산다꼬, 성질이라도 조으마, 암만 아라도 그러이 미버 / 가하고 같이, 시이들 줄줄이하고 / 목고 나서 거 두고 가, 업고 들고 이고 그래가 땡겼지 / 잡사도 안 돼
- (13) ㄱ. 이놀 저놀 하지 마라, 그 놀들 먼저 / 이 옷 안 추운데요, 옷 취요 추워요 / 삼촌!~삼촌 없는데요 / 사촌언니 있어요 / 부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주한다 하잖아요 / 그리구 진짜루 그래요~그리고 뭐 해요? / 그래두 뭐 어쩔 수 없쥬 ~ 그래도 하면 안 되요? / 아마두.. 뭐..
 ㄴ. 어디루 가는데요?, 폰으루 찾아도 돼요?~이걸로 어떻게 해요? / 과자두 좀 먹어요~이거도 다 해요?, 꿀도 더 먹을래요 / 거기라도 가보면 안 돼요?, 학교라도 열심히 다녀라, 혹시라도~혹시라도 / 언니야들하구 오빠야들하구, 동생하구 같이~아하고 같이, 니하고 내하고, 야들하고 우리는 / 그만하라구, 하지말라구~하지말라고, 잘 먹구 좋았는데~그거 보고 했는데요 / 공부해도 안 돼요, 먹어 두 돼요?~먹어도 된다 캐다, 안 가도 돼요?

ㄱ, ㅎ 구개음화와 달리 ‘오→우’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 모두에서

변이형이 나타난다. (12.ㄱ)은 노년층 화자들의 형태소 내부 '오→우' 실현 양상이고, (12.ㄴ)은 형태소 경계 실현 양상이다. (13.ㄱ)은 청소년층 화자들의 형태소 내부 '오→우' 실현 양상이고, (13.ㄴ)은 형태소 경계 실현 양상이다. 먼저 형태소 내부 환경의 변이형을 살펴보자. 어휘 형태소 중에서도 '눔, 옷'의 경우 노년층에서만 실현형이 나타나고 청소년층에서는 비실현형만 나타난다. 반면에 같은 어휘 형태소임에도 '삼촌, 부조, 그리고, 그 래도'는 청소년층에서만 실현형이 나타나고 노년층에서는 비실현형만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부조'의 경우 청소년층에서는 '오→우'의 변화가 적용된 개신형만 나타나므로 '부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운현상 확산될 때 같은 환경이더라도 개별 어휘마다 다른 시기,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ㄴ), (13.ㄴ)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 환경은 문법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조사 '로, 도, 라도, 하고', 연결 어미 '-고, -아/어도', 종결 어미 '-고'에서 '오→우' 변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2.ㄴ)은 노년층 화자들의 발화인데 어떤 문법 형태소에서도 '오>우' 변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3.ㄴ)의 청소년층 화자들은 형태소 내부일 때보다 더 생산적으로 '오→우'의 변화가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주현(2008)에서는 대구와 안동방언을 대상으로 '오→우'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연결어미 '-고'에서는 '오→우'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달성지역에서는 청소년층에서 '오→우' 변화가 실현되는 개신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형태소의 경우, 노년층과 청소년층 모두에서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공존했지만, 어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 반면, 문법 형태소에서는 청소년층에서만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공존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변이형의 공존 양상을 자세히 보면 개신형(실현형)보다는 보수형(비실현형)

의 출현 빈도가 높으므로 ‘오>우’ 변화는 상당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오>우’의 변화 과정

강희숙(1998: 7)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예들을 통해 변화의 수행과 확산 방식을 설명하려 하였거나, 일정한 공시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변이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오>우’의 공시적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오>우’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7세기 달성지역어를 반영한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4) ㄱ. 권속(158), 덕휘(19), 므슴 연구 이셔(114), 연구 없거든(153), 연구 있다(119), 굳ㅎ니
 ㄴ. 아마도(38), 누비웃(102)
 ㄷ. 널골(61), 더옥(158)
- (15) ㄱ. 상직도(12), 술도(16), 일시도(23), 구들목의도(23), 칭심도(23), 오늘로(16), 덕일로(16), 조용흔 날로(7), 아희들ㅎ고(12), 언옥이ㅎ고 한 덕ㅎ고(19)
 ㄴ. 가디고(17), 미여 두고(12), 흐티 드리고(13), 몸 미쳐 보아도(14)
 ㄷ. 싱각홀소록(19)

(14)는 체언에 적용된 ‘오>우’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14.ㄱ)의 ‘권속, 덕휘, 연구, 굳’은 각각 ‘권속(眷屬), ‘덕호(鬼魂), 연구(緣故), 굳(因)’의 ‘오’가 ‘우’로 변화한 것으로 모두 한자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14.ㄴ), (14.ㄷ)은 고유어 체언에서 나타나는 ‘오>우’ 변화 양상인데, (14.ㄴ)의 ‘아

마도, 옷'에서는 '오>우'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풍곽씨언간』에서는 '나무(<나모), 아무(<아모)'와 같이 고유어에 적용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14.ㄷ)은 '닐굽, 더욱'이 '닐굽, 더욱'으로 변화한 것으로 '우>오'로 변화한 예임을 알 수 있다. (14)를 통해 비록 소수의 예시이기는 하지만 달성지역에서 '오>우' 변화가 17세기 전기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풍곽씨언간』에서는 (15)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도 '오>우' 실현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달성지역의 '오>우' 변화는 일부 한자어에서만 적용되고 나머지 어휘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달성지역어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달성군편』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16)과 같다.

- (16) ㄱ. 옷을 잘 입혀가지고(131)~옷도 잘 입고(278), 이늬이(131) ~ 유식한 늬(132), 이쭈우, 이쭈에(254)
cf. 기둥, 지둥(150)
- ㄴ. 사람도(296),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30), 그올로(그위로)(250), 있어가지고(30), 염려하지 말고(149), 말을 높이고(149), 기양 두고(179), 기분이 나빠지고(30), 달이가지고(296)

(16.ㄱ)은 모두 어휘 형태소로 '옷, 늬, 쭈'이 '오>우'로 변화하여 각각 '옷, 늬, 쭈'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어휘들이 개신형과 보수형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오>우' 변화가 어휘 형태소에서 확산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6.ㄴ)은 모두 문법 형태소인데 『현풍곽씨언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우' 변화가 적용된 개신형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²⁾

12) 『한국방언자료집VII-경상북도 편』에서도 '삼촌[samcʰon], -느라고: 하느라고[hanyirago,

(12)~(13)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달성지역어에서는 개별 어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휘 형태소에서는 17세기와 1980년대에 비해 조금 더 활발하게 ‘오>우’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형태소 역시 17세기 『현풍곽씨언간』과 1980년대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보수형만 나타났던 점에 비해 현재 달성지역 청소년층에서는 개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휘 형태소 안에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수행·확산되었던 ‘오>우’ 변화가 문법 형태소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진적 확산은 현대국어 단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¹³⁾ 그러나 달성지역의 ‘오>우’ 변화는 확산되는 힘과 속도가 중부방언에 비해 미약하다.¹⁴⁾

ㄱ, ㅎ 구개음화와 달리 ‘오>우’의 변화는 확산·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오>우’의 변화는 주로 청소년층 여성 화자들에 의해 확산되며, 담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개신형과 보수형을 바꿔가며 사용한다.¹⁵⁾ ‘오>우’의 변

hadabonji], -라/다고: 뭐라고[mɛrakʰE:nno], -라/다고: 오라고[orakʰo]와 ‘오→우’로의 고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들이 많았다.

13) 강희숙(1999: 116-117)에서도 어휘 형태소 안에서 수행되었던 ‘오>우’ 변화는 체언이나 용언에서부터 시작되어 부사어 어휘들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점진적 확산은 현대국어 단계에서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문법형태소에서 나타나는 ‘오>우’ 변화의 개신형과 보수형의 공존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언어학적 공간 속에서 부단한 변이 현상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14) 백두현(1992: 141)에서도 ‘오>우’의 적용이 이 방언에서 수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적용력도 중부방언에 비하여 비교적 약하였던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한 바 있다. 또 김이름(2008: 41)에서도 서울말에서 ‘오’가 ‘우’로 실현되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어휘 형태소는 물론 문법 형태소에서도 실현된다. 장음을 수반하지 않은 ‘오’가 ‘우’로 바뀌는 것은 남한 전역에서 발생한 현상이기는 하나 중부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실현을 보인다고 한 바 있다.

15) 청소년들끼리 카드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할 차레라고!”와 같이 화가 나서 강하게 자기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보수형을 사용했고, “제발 부탁이야. 내가 할 차레라구. 내가 먼저 할게.”와 같이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개신형을 사용했

화는 ㄱ, ㅎ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중부방언에서 생산성 있게 사용되는 언어 현상이다.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방언 화자들은 서울 방언, 중부 방언이 공공연한 권위(overt prestige)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 화자들의 경우 공공연한 권위를 가진 언어 현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달성지역에서도 청소년층 여성 화자들을 중심으로 '오>우' 개신형을 전파하는 개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위의 세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의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각 시기의 '오>우'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보이면 (17)과 같다.

(17) '오>우'의 변화 과정

	17세기	1980년대	2013년	
	현풍곽씨언간	구비문학대계	노년층	청소년층
오>우	오	오	오	오
	우	우	우	우
변화단계	생성 · 확산 →			

달성지역에서 '오>우' 변화는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영역이 어휘 형태소에 한정되어 있었고 확산 속도 또한 미약하였다. 그러다가 현대 국어 시기에 접어들면서 TV를 비롯한 매체의

다. 또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맞는데요, 제가 그런 건 아니구요. 근데 같이 한 건 맞구요. 죄송해요.”와 같이 개신형을 사용했다. 담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16) 김규남(2000)에서도 문법 형태소 '-고, -로, -도'의 '오'가 '우'로 고모음화되는 것이 젊은 여성들에 의해 전주 언어공동체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 확산의 요인을 전주 지역 여성 화자들이 중부 지역 여성 화자들의 말투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언어 태도와 관련지어 논의한 바 있다.

영향으로 중부방언에 많이 노출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문법 형태소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오>우’ 변화는 17세기부터 나타났지만 현대국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우’ 변화는 ㄱ, ㅎ 구개음화와 반대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의 방식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ㄱ, ㅎ 구개음화’와 ‘오→우’의 변이형들을 중심으로 달성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변화 양상 및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달성군이라는 언어 공동체 내에 나타난 공시적 변이형들을 살펴보았다. 변이형들은 화자 내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언어 공동체 내부 화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달성군 내부 화자들 사이의 변이형, 특히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 나타나는 변이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달성지역에서 ㄱ, ㅎ-구개음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현대 노년층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짱기다’를 제외하면 ㄱ,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에 생성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였지만 현대국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달성지역에서 ‘오>우’ 변화 역시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영역이 어휘 형태소에 한정되어 있었고 확산 속도 또한 미약하였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어휘

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소에서도 개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달성지역어의 '오>우'는 변화는 17세기부터 나타났지만 ㄱ, ㅎ 구개음화와 반대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의 방식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진행·확산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숙, 『‘오>우’ 변화의 수행과 확산』, 『국어학』33, 국어학회, 1999, pp.99-123.
- _____,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광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47, 한국언어문학회, 2001, pp.537-564.
- _____,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전남방언과 서울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pp.1-32.
- 김규남, 『변항 (-Xo)의 개시에 대한 전주시 화자들의 언어태도와 비제도적 규범』, 『한국언어문학회』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pp.543-566.
- 김이름,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41.
- 김주원,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29, 국어학회, 1997, pp.33-49.
- 김주필, 『진주 하서 묘 출토 한글 필사 자료의 표기와 음운현상』, 『진단학보』75, 진단학회, 1993, pp.129-148.
- 김진우,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 『어문연구』7, 어문연구학회, 1971, p.88.
- 박종희 · 권병로, 『구개음화 현상의 인지적 고찰』, 『한글』291, 한글학회, 2011, pp. 47-72.
- 백두현,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회, 1992.
- _____, 『<현풍 광씨 언간>의 음운사적 연구』, 『국어사연구』 창간호, 국어사학회, 2000, pp.97-130.
- _____, 『현풍광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
- 소신애,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의 상관성-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태학사, 2009.
- 안주현, 『대구·안동 지역어의 비모음화와 고모음화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64-65.
- 오종갑,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8.
- 이상규 · 안귀남, 『한국어 방언학』, 학연사, 2007.
- 정영인 외 6인, 『언어변이와 변화』, 태학사,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14-경상북도 달성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Blevins, Juliett, *Evolutionary Phonology*, University Press, 2004.
- Guison, Susan G.,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sound change of velar palatalization, *Phonetica* 55, 1998, pp.18-52.

Labov, W.,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ume II. Social Factor*, Cambridge : Blackwell, 2001.

Wang, W., Competing Changes as Cause of Residue, *Language* 45, 1969, pp. 9-25.

Abstract

Study on Variation and Change of k-Palatalization, h-Palatalization and 'o>u' Appearing in Dalseong Dialect

Bae, Hye-Ji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k-palatalization, h-palatalization and 'o>u' variations appearing among the younger and older speakers in Dalseong province and then identify changes and processes of both phoneme phenomena. At first, the k-palatalization and h-palatalization in Dalseong province are realized in the older generation but not mostly in the younger one in the modern society. Based on this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k-palatalization and h-palatalization appearing in Dalseong dialect were generated at least in the 17th century and then, gradually diffused but have dramatically disappeared as the present-day Korean has been developed. As the case of palatalization, it is also can be said that the 'o>u' change was originated from the early 17th century, but the application of it was confined to lexical morpheme and diffused very slowly. However, innovation forms are appearing in lexical and grammatical morpheme used by the modern youth. Thus, although the 'o>u' change in Dalseong Dialect has been also occurred since 17th century, it can be identified as a phoneme phenomenon which has been proceeding and diffusing so far through gradual lexical diffusion, in contrast to k-palatalization and h-palatalization.

Key Word : Dalseong Dialect, k-palatalization, h-palatalization, 'o>u' change,
language variation, language change, lexical diffusion

배혜진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인문관 317호

전화번호 : 010-5015-6953

전자우편 : baehj33@naver.com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